스트라이크 12!… 300점을 노린다

스포츠 포커스

전국 최강 전남과학대 볼링부

"스트라이크!"

레인위를 질주하는 공이 열개의 핀을 통쾌한 소리와 함께 날려버린다. 12게임 모두 스트라이크로 마쳐야 '퍼펙트 300점 만점'을 얻을 수 있다. 그렇지만 이 가능할 것 같지 않은 퍼펙트에 도전하는 10인의 볼러들이 있다.

전남과학대(학장 조성수) 볼링부 10명의 선수들이 그 주인공이다. 안상준 주장을 비롯해 정호영, 안영호, 김범철(이상 2년), 강영경(여), 한지형(여), 정동용,박준우,박재모, 김진웅(이상 1년)은 오늘도 퍼펙트를 꿈꾸며 힘차게 공을 던진다.

'10인의 볼러' 퍼펙트 도전

지난 1999년 지역우수 선수 유출방지와 연계육성등을 위해 창단한 전남과학대 볼링부는 지난 2000년부터 각종 대회에 출전,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한국체육대학 볼링팀과 더불어 대학 최강의 팀으로 자리잡았다.

2003년 각종 대회의 개인전, 5인조전, 단체종합에서 두각을 나타내더니 2004년에는 전국남녀볼링대회 5인조전 우승을 시작으로 단체전에서 전국최강으로 자리잡았다. 그리고 2005년 전남과학대는 각종대회의 단골우승으로 여타의 팀들로부터 공포의 대상으로 자리잡게 된다.

특히 올 초에는 대한볼링협회선정 최우수대학팀으로 선정돼 전국의 볼링전공 선수들로부터 진학하고 싶은 학교 1위로 꼽히고 있다. 현재 10명의 선수들 가운데 8명이 울산 등 타지 출신 선수들인 것 을 보더라도 전남과학대 볼링팀이 운동하기 좋은 환경을 갖춘 최고의 팀임을 증명하고 있다.

짧은 역사에도 전남과학대 볼링부가 전국최강으로 자리매김 한 데는 박승권(46) 교수 겸 감독의 열성적인 지도와 학교의 지원, 선수들의 피나는 노력등 3박자가 완벽한 화음을 이뤘기 때문.

박 감독은 전국에서 유망한 선수들을 데려오려고 하기 보다는 발전가능성이 무한한 선수들을 스카우트 했다. 여 기에 전남과학대는 학교내에 4레인을 시설을 갖춘 볼링장과 최첨단 웨이트트레이닝 장을 설치했다. 또 10명 학생의 합숙소 ,숙식, 장학금을 제공했다. 이같은 전남과학대의 지원은 학생들이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원동력이 됐다.

박승권 감독은 "전 선수들이 합숙훈련을 하면서 아침운동, 수업, 오후운동등을 함께 하고 있다"며" 24시간 중 수업 받는 시간을 빼면 모든 선수가 함께하기 때문에 단체전에서는 전국최고의 실력을 자랑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준우 선수는 "다른 대학 팀보다 우리팀의 컬러는 팀워크다"며 "감독님이 대화와 타협으로 선수들을 지도하고, 각자 타지에서 왔지만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호흡을 맞추기 때문에 눈빛만 봐도 서로의 생각을 알 수 있다"고 웃었다.

팀워크 탄탄 … 또한번의 도약

이들의 하루 일과는 체력운동부터 시작된다. 수업 받기 전 오전 6시 30분에 기상, 운동장 200m 트랙30바퀴를 돌고, 50계단 오르내리기 30회, 50m왕복달리기 50회를 실시한다.

안상준 주장은 "고교때 최고 선수가 아니더라도 전남과학대에 진학한 후에는 모두 1급 선수로 변모할 수 있다"며 " 그 밑바탕은 강인한 체력을 바탕으로 기술훈련을 하기 때문에 기량이 가파르게 상승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오전 체력훈련을 마치면 정규수업을 하고 오후 1시 30분부터 1시간 가량 또 다시 체력훈련(유연성 훈련)을 실시한다. 그리고 2~4시까지 팀훈련, 4시~5시30분까지 다시 웨이트트레이닝이 기다리고 있다.

대한볼링협 선정 최우수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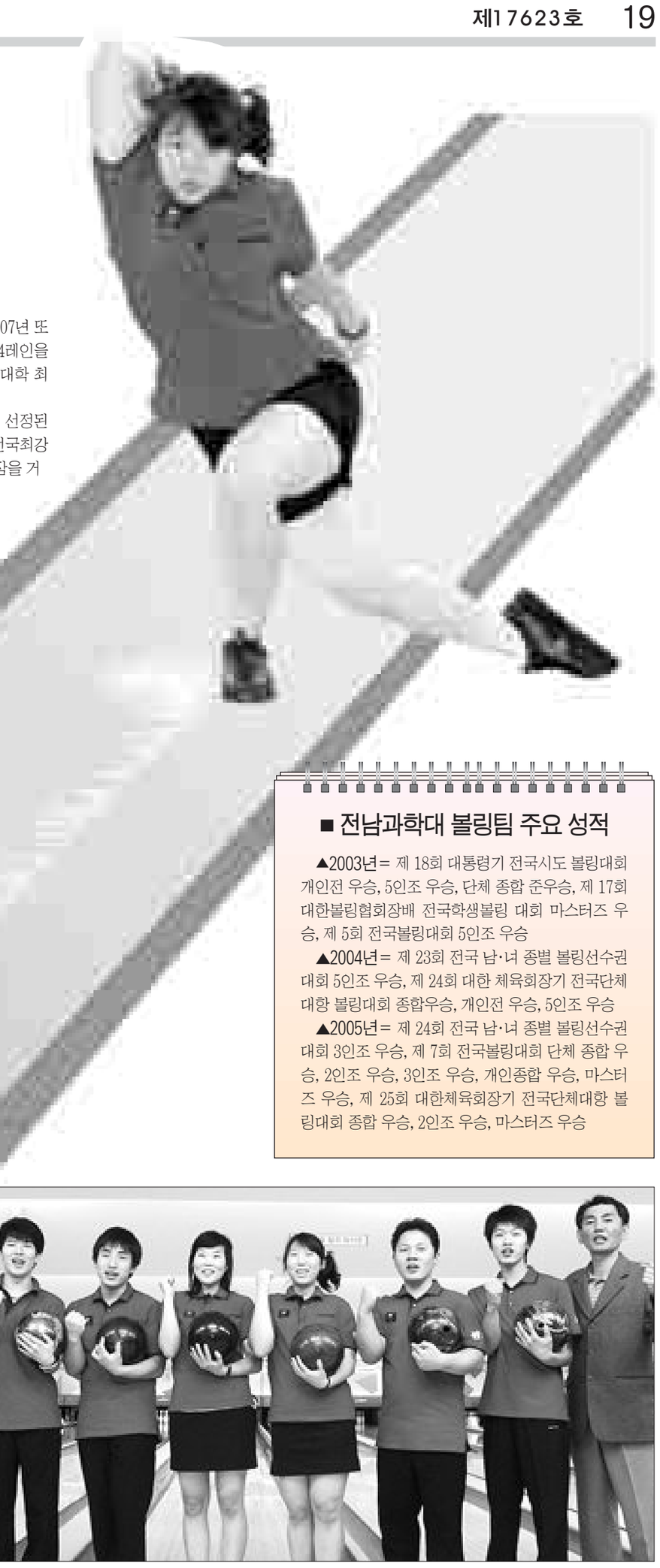
뿐만 아니다. 토요일에는 왕복 4시간 코스의 옥과 설산을 오르내리는 등반 체력훈련을 마쳐야 일주일이 지나간다.

강영경은 "처음에는 오래달리기 선수들인줄 알았을 정도로 힘든 체력훈련이 견디기 어려웠다"며 "지금은 탄탄한 체력이 바탕이 돼 14~15파운드의 볼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게돼 내년 대회부터는 좋은 성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남과학대 볼링팀은 다가오는 2007년 또한 번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 현재 4레인을 갖춘 볼링장을 8레인을 증설해 전국대학 최초로 12레인의 시설을 공사중이다.

대한볼링협회 전국최우수 대학에 선정된 전남과학대 볼링팀은 2007년에도 전국최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오늘도 새벽잠을 거두고 운동화 끈을 질끈 동여맨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전남과학대 볼링팀 주요 성적

▲2003년= 제 18회 대통령기 전국시도 볼링대회 개인전 우승, 5인조 우승, 단체 종합 준우승, 제 17회 대한볼링협회장배 전국학생볼링 대회 마스터즈 우승, 제 5회 전국볼링대회 5인조 우승

▲2004년= 제 23회 전국 남·녀 종별 볼링선수권대회 5인조 우승, 제 24회 대한 체육회장기 전국단체대항 볼링대회 종합우승, 개인전 우승, 5인조 우승

▲2005년= 제 24회 전국 남·녀 종별 볼링선수권대회 3인조 우승, 제 7회 전국볼링대회 단체 종합 우승, 2인조 우승, 3인조 우승, 개인종합 우승, 마스터즈 우승, 제 25회 대한체육회장기 전국단체대항 볼링대회 종합 우승, 2인조 우승, 마스터즈 우승

김도형코치, 정동용, 안영호, 김범철, 강영경, 한지형, 안상준, 박준우, 박승권 감독.(왼쪽부터)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